

"나는 기생충이야"

李 純 炯

우리 간흡충이 사람몸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병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간흡충이 기계적으로 담관을 막거나 간조직에 자극을 주어 일어나는 병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간흡충이 내뿜는 여러가지 배설물과 분비물이 사람에게 독작용을 나타내서 일어나는 병변입니다.

우선 우리 간흡충이 사람몸안에 들어가면 용케도 창자에서 담관을 통해 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 간흡충 애벌레의 수가 많으면 간속의 가는 담관을 막게 됩니다. 또 우리 간흡충들은 이 담관내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므로 애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될때까지 자기 몸의 크기에 알맞는 담관에 꼭 끼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에서 만들어내는 담즙(쓸개즙)이 담관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혈관으로 역류해 들어가 황달을 일으키지요. 마치 하수도에 물이 끼어 하수도물이 잘 빠지지 않고 하수구로 다시 나오거나, 굴뚝이 막혔을때 연기가 굴뚝

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궁이로 나오는 원리와 같다거나 할까요.

뿐만아니라 우리 간흡충이 부지런히 까내는 총관도 담관을 막는 역할을 단단히 합니다. 우리의 많은 알이 조금씩 새어나가 담즙과 섞여서 찢든 찢든한 진흙모양의 담즙이 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서 담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집지을때 콘크리트를 개는것을 보셨을겁니다. 우리 간흡충의 알은 콘크리트 만들때의 자갈과 같고 담즙은 물에 반죽한 시멘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하수도관에 넣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몸안의 간속에서 우리 간흡충으로 인한 기계적 장애는 이렇듯 우리 간흡충의 성충뿐 아니라 알에 의해서도 심하게 나타나지요. 또 우리 성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입과 배에 있는 흡반으로 담관벽의 여기 저기를 물고 빨고하여 담관벽에 흡집을 내거나 혈계 합나

다. 여기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세균들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담관은 하수도의 토관같지 않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혹충으로 인하여 막힌담관은 조금씩 늘어나며 또 그 주위가 두꺼워 지고 굵어 집니다. 담즙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여있는 곳은 훨씬 늘어나서 많은 파리모양의 주머니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담관주위로 부터 간조직으로 차차 결체조직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의 간을 날로 잡수실때 소의 간은 아주 말랑 말랑하고 손으로 꼭 쥐면 뭉그러지는것을 경험하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주 힘줄이 많은 간도 있어서 아무리 썰어도 고무같이 잘 씹히지 않고 나중에 줄거리가 남는 경험도 있을것입니다. 결체조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간에 이렇듯 힘줄을 많이 만드는 세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굵기야는 간에 힘줄이 많아지고 단단하게 되는 이른바 간경화증을 초래하게 되지요. 이런 간경화증은 우리 간혹충이 들어 있는 담관주위에서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직접 들어있지 않는 담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간혹충이 내는 분비물이나

배설물로 인한 독작용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즈음에는 우리 간혹충에 걸렸을때 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의 명예로운 이름이 사람에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즉 낙동강 유역같은 한국의 간혹충 유행지역에서 보면 간암의 일종인 담관세포환자들이 많고 이들은 흔히 우리 간혹충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우리 간혹충으로 인한 간경화증을 합병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간혹충 유행국에서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 간혹충도 그리 녹녹치 않은 기생충이라는 것을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간혹충을 몰아낼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상 천하무적입니다.

실사 우리들을 죽이거나 몰아낼수 있는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남겨놓은 자국은 영원히 간속에서 지워지지않고 빛날것입니다 왜냐구요? 벽에 못을 박았다가 빼어도 못자국은 벽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원리와 같이 우리 간혹충이 몸망 죽어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로 인해 입은 간의 손상은 여간해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 = 중앙의대기생충학 부교수·의박>